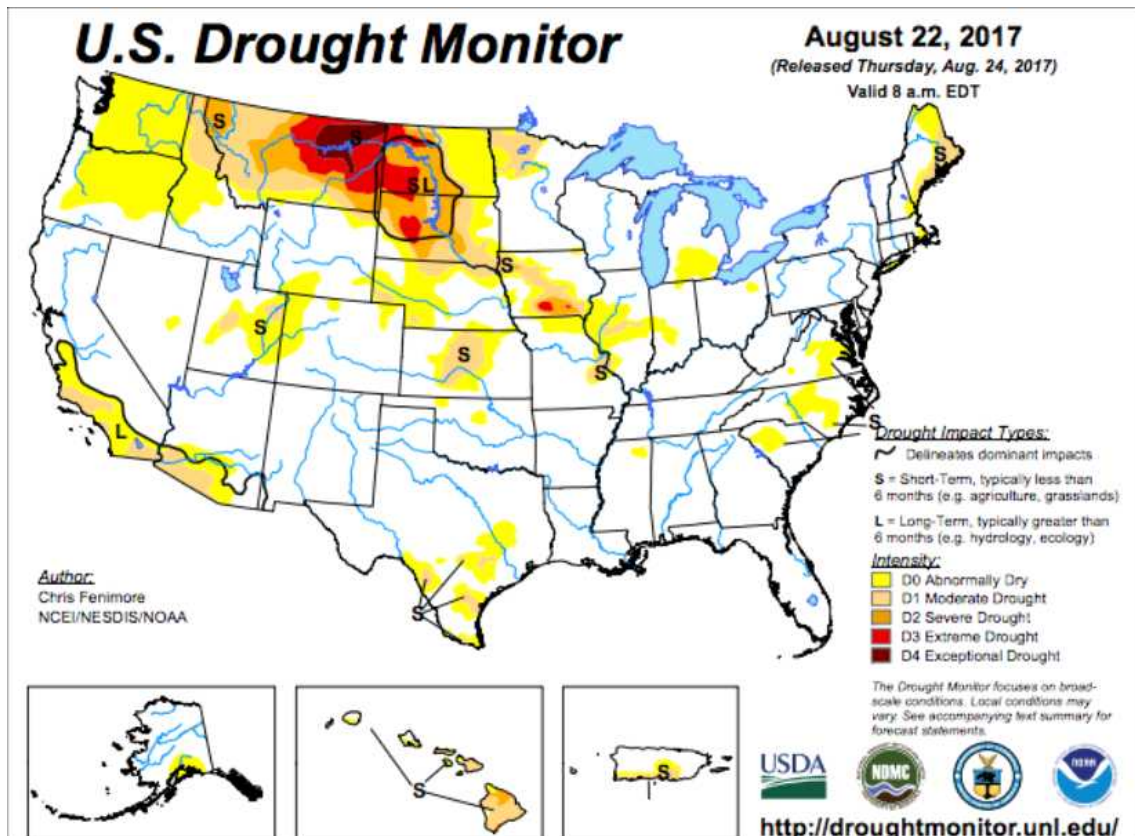


8월 2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35)

□ 미국 기후 현황(8/20~8/26)

허리케인 Harvey가 소멸했지만, 남은 구름으로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휴스턴을 비롯한 인근 지역 전역이 침수되었다. 텍사스 Rockport에서부터 루이지애나 남서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8월 27일까지 10~30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Harvey가 지나면서 걸프만 서부 일대에서는 강풍에 의한 피해도 곳곳에서 발생했는데, 텍사스 해안 중부 일대에서 강풍 피해가 특히 더 심했다. 허리케인 Harvey가 상륙하기 전까지는 맑고 평온한 날씨 속에 농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허리케인이 지나고 길목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가축들을 고지대로 피난시키고 면화, 쌀 등의 수확작업을 서둘러 진행하는 등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집중했다. 로키산맥 남부 일대와 대서양 연안 남부 일부 지역 등에서는 지역적인 영향으로 비가 몇 차례 내렸다.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F 정도 낮았고, 북동부의 많은 지역에서도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다. 남동부와 서부 전역에서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맑은 날씨 덕분에 농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 농업 현황 요약(8/21~8/27)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한 가운데, 주요 옥수수 재배지 서부 일대와 걸프만 연안 서부 지역에서는 많은 비가 쏟아졌다. 허리케인 Harvet가 금요일 밤 상륙하면서 텍사스 남동부와 루이지애나 남서부에서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 일요일 밤까지 약 이틀 동안 텍사스 걸프만 연안에서는 20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중부와 북동부 전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았고, 특히 오대호 인근 지역에서는 기온이 6°F 이상 낮은 곳도 있었다. 서부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는데, 특히 캘리포니아, 오레곤, 와이오밍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6°F 이상 높은 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렸다.

□ 세계 기후 현황(8/20~8/26)

■ 유럽: 북유럽에서는 맑은 날씨가 찾아오면서 지난 몇주간 비로 인해 중단되었던 농작업이 재개되었다. 지난 60일간 내린 비의 양은 평년의 2배 정도였는데, 이 때문에 겨울밀 수확작업이 지연되면서 수확량이 감소하고 품질도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일과 폴란드에서는 장기간 내린 비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수확량 감소가 예상된다. 프랑스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에 비해 4°C 정도 높았고, 곳에 따라서는 수확작업이 시작되기도 했다. 스페인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8~42°C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뭄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베리아 반도 전역에서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저수지들이 매우 낮은 저수량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의 옥수수, 대두, 해바라기 등도 가뭄으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4~3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그리스에서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면화송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 서부에서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이번 비는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었지만, 농작물의 생장에 도움을 주기에는 다소 늦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도 10~40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 겨울밀 파종에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지만 옥수수와 해바라기 등의 수확작업은 비로 인해 중단되었다. 러시아의 옥수수, 해바라기 수확량은 지난 8월 한 달간 기승을 부렸던 더위와 가뭄으로 인해 평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Volga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37°C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 동아시아: 중국 동부의 양쯔강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고, 북동부에서는 주 초반 비가 내렸다가 주 후반으로 가면서 맑은 날씨를 회복했다. 지난 7월 25일 이전까지는 양쯔강 일대 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강우량을 기록했는데, 이후 8월 한 달간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가뭄을 해소해주는 한편 벼 등의 농작물에 충분한 양의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하지만 Heilongjiang 서부, Jilin 및 주변지역, 내몽고 등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 남부에서는 태풍 Hato가 상륙하면서 Guangdong 지역에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한반도 일대에서는 100~2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벼 재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 벼의 생육상황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기온이 평년보다 3~5°C 정도 높은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0°C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 호주: 서호주 일대에서는 지난 몇주간 비가 내렸지만 지난 한주간은 맑은 날씨를 보였다. 현재 서호주 일대에서 재배중인 작물들 대부분이 개화기를 지나면서 과육이 생성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난 몇 주간 내린 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호주와 빅토리아주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밀, 보리, 캐놀라 등에 충분한 양의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그 밖의 밀 재배지역에서는 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이례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북동부와 서부 등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 남동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낮은 날이 이어졌다.

■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였고, 농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중부의 La Pampa, Santa Fe 남부, Cordoba 및 Buenos Aires 등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Entre Rio, Santa Fe 중부 등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앞서 언급한 지역들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4°C 정도 높았는데, 밤 동안에는 곳에 따라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북부 일대에서도 대체적으로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내렸다. 아르헨티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8월 24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96%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4%p 정도 앞서는 수준이다. 밀의 파종률은 99%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

■ 브라질: 남부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Santa Catarina, Parana 주변지역, Rio Grande do Sul 등에 집중되었고, Mato Grosso 북부 등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8월 21일 기준 밀의 수확률은 2%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모작 옥수수의 수확률은 86%였다. Rio Grande do Sul에서는 같은 기간 기준 밀의 개화율이 15%를 기록했다. 브라질 중부의 Mato Grosso, Bahia 서부 등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고, 낮 최고기온은 40°C까지 오르내렸다. 8월 25일 기준 Mato Grosso의 면화 수확률은 74%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1%에 비해 상당히 느린 속도이다. 북동부 해안지역에서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